

코민테른과 韓人共產主義運動*

金 昌 順**

- | | |
|--------------------------------------|-----------------------------------|
| I. 序 論 | V. 코민테른의 朝共黨批判과 方針提示 |
| II. 코민테른의 高麗共產黨解散과 레닌集團의 韓人政策 | VI. 코민테른大會의 韓國共產主義運動에 關한 決議와 對韓政策 |
| III. 코민테른 極東人民大會의 韓國革命課題와 레닌集團의 韓國政策 | VII. 코민테른의 朝共黨再建指令과 民族協同戰線의 運命 |
| IV. ML黨에 내려진 指令과 코민테른의 對韓政策 | VIII. 코민테른 外廓組織의 指令과 對韓政策 |

I. 序 論

韓人の 共產主義運動은 제 3차 러시아 革命후 시베리아에서 起源的으로 發生하였다. 즉, 1918年 1月 「일크스크」에서 볼세비키黨의 韓人支部가 結成되었고 同年 6月 「하바로보스크」에서 韓人社會黨이 結成되었다. 兩者 모두 根本的으로는 反日獨立의 민족운동을 基本精神으로 했으나 前者는 대체로 歸化人 집단이었고 後者는 非歸化人 집단이었던 관계로 體質上 役割面에서 差異가 있었다. 前者는 西部시베리아의 歸化韓人을 직접적으로 볼세비키 前線에 動員하는 것이 當面課題로 되었고 後者는 極東시베리아의 韓人社會를 反日戰線으로 糾合하여 민족독립운동을 展開하는 것이 當面課題로 되었다.

國內에서 3·1 운동이 일어나고 上海에 大韓臨時政府가 수립되자 東部시베리아의 韓人社會黨首 李東輝는 上海臨政의 初代 國務총리로 就任하였다.

* 이 研究는 1985年度 文敎部 共產黨研究支援金을 받아 西江大 東亞研究所에서 주관하여 이루어진 것임.

** 北韓研究所 理事長.

이로써 上海臨政의 性格은 적어도 형태상으로는 民族·共產의 聯政임을 부인할 수 없게 하였다. 물론 李東輝는 理念的인 共產주의자가 아니고 다만 反日獨立을 달성하려는 一念에서 레닌集團의 힘을 얻으려고 했던 열렬한 민족주의자였지만.

아울러 李東輝의 韓人社會黨은 指導部를 上海로 옮기고 1921年 1月 高麗共產黨으로 改編, 同年 5月 까지 黨宣言, 綱領, 規約, 幹部를 발표했다. 이와 거의 同時期的으로 上海臨政에는 李東輝一派에 提供된 「모스크바資金」문제를 둘러싸고 內紛이 발생하여 一部 有力者들이 「일크스크」派에 가담함으로써 韓人의 初期 海外공산주의운동은 모스크바 資金의 解明을 요구하는 民族陣營과의 對立 및 上海派와 일크스크派의 分裂派爭으로 지새우게 되었는데, 마침내 1922年末 코민테른에 의하여 兩派의 高麗共產黨은 모두 해산 당하고 國內黨(「朝鮮共產黨」) 건설단계로 轉換하게 되었다.

1923年 5, 6月頃부터 코민테른機關의 要員들에 의하여 서울에 먼저 地下據點이 마련되고 이것을 核으로 1925年 4月 서울에서 朝鮮共產黨이 結成되어 史上 처음으로 코민테른의 韓國支部가 설치되었다.

朝鮮共產黨은 코민테른의 指令에 따라 움직이면서 1928年末까지 3年 6個月 동안 연속적인 검거를 당하면서도 艱辛히 黨命만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28年 12月 코민테른 當局은 朝鮮共產黨에 대하여 再建指令을 發하고, 黨體質의 改進黨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에 의하여 종래의 朝鮮共產黨 조직은 國內外를 막론하고 총체적으로 해체되고 各人 各派에 의한 「黨再建鬭爭」 단계에 들어갔는데, 滿洲와 日本에서는 코민테른의 一國一黨原則에 의하여 朝鮮共產黨의 재건공작이 허용되지 않았다. 따라서 黨再建工作은 韓國內에 限定될 수 밖에 없었는데, 1945年 8, 15 해방에 이르기까지 누구도 黨再建을 실현하지 못하였다.

本 小論은 韓人 共產주의 운동의 全過程을 통하여 코민테른의 意志 곧 레닌·스탈린集團의 方針이 무엇이었던가를 再確認함으로써 소련共產黨의

오늘의 韓半島정책을 理解하는데 多少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미숙함을 무릅쓰고 몇가지 문제를 重點構成의으로 살펴보기로 했다.

Ⅱ. 코민테른의 高麗共產黨解散과 레닌集團의 韓人政策

시베리아와 上海의 韓人社會에 조직을 가졌던 高麗共產黨은 1922年 12月末 코민테른에 의하여 解散되었다. 이에 대한 呂運亨과 曹奉岩의 證言은 다음과 같다.

『코민테른當局은 各代表의 報告를 듣고 裁斷結果 朝鮮共產黨은 朝鮮國內에서 그 민중의 支持하는 바에 따라 조직할 것이며 海外에 있는 사람들이 제각기 공산당을 조직하여 서로 세력싸움을 벌이는 것은 何等의 의의가 없으니 兩派가 가지고 있는 조직을 즉시 解散할 것을 指示함과 아울러 장차 「브라디보스도크」에 高麗部를 설치할 터이니 同部 部員은 朝鮮國內에 들어가서 朝鮮공산당을 조직할 것이라는 지령을 내렸다……「레닌」은 말하기를 完全한 支部(Section)를 海外에 조직할 수는 없는 일이므로 海外의 共產主義集團(Com. Group)을 解散하여 朝鮮內에 支部를 조직하도록 하라고 指令하였다.』¹⁾

『各派代表들은 자기들만이 韓國공산주의 운동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집단임을 주장하고 또한 상대방의 罪를 열거하면서 「부하린」에 달려갔다. 「부하린」은 이에 응답하여 말하기를 “당신들은 兩派가 똑 같소. 당신들 중의 누구도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에 관한 진정한 사실들을 알고 있지 않소. 당신들은 사실상 다만 독립운동에 종사하고 있을 뿐이요. 그러므로 당신들의 개인적 差異點을 調整하여 통합하도록 하시오” 라고 하였다.』²⁾

大部分의 기록 특히 日帝統治文書에 收錄되어 있는 高麗共產黨관계 文書들은 코민테른의 同黨解散조치가 韓人의 分派투쟁에 모든 책임이 있는 것으로 말하고 있다. 물론 韓人社會의 分派투쟁 사실을 부인할 것은 못된

1) 「呂運亨調查」 pp.59~60, p.551.

2) 로버트 A. 스칼라피노 · 李庭植 共著, 「韓國 共產主義 運動의 起源」 pp.57~58. (曹奉岩證言), 韓國研究圖書館, 서울, 1961年.

다. 그러나 分派투쟁은 러시아 共產主義者들의 사회에서도 中國공산주의자들의 사회에서도 있었다. 그것 때문에 코민테른의 解黨조치를 당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分派투쟁만의 이유로 高麗共產黨이 해산당했다는 見解 특히 日帝文書의 結論은 당시의 러시아情勢의 변화와 이에 따른 「레닌」集團의 韓人정책을 제대로 理解하지 못한 結論을 看過할 수 없다.

「레닌」集團은 滿5年間の 赤白派國內전쟁 및 外國武力干涉의 艱苦한 時局에 비로소 시베리아를 포함한 全러시아를 장악하게 되고 日本軍의 철수가 최종적으로 실현됨으로써 死活的 危急을 넘어서게 된 것이다. 1922年末 極東共和國의 發展의 解體와 그 版圖의 「레닌」政府에의 引繼와 거의 同時에 高麗共產黨은 해체되고 말았다. 이것은 결코 偶然의 一致로 돌릴 것이 못된다.

1917年 볼셰비키 革命후 「레닌」集團이 시베리아 全域을 장악하기까지 이 期間에 적지않은 韓人들이 혹은 共產黨員으로 혹은 赤軍의 一員으로 소비에트 防衛戰線에 動員되었다. 이들의 대부분은 볼셰비키 革命에 理想的으로 公명했다느니 보다는 大國러시아의 새로운 세력에 기대를 걸었던 것이다. 이 보다는 더 현실적으로는 白派軍을 支援하는 日本出兵軍이 미워서 赤派에 가담하게 된 것이다. 그것은 곧 시베리아 韓人의 民族的 反日투쟁을 의미했다. 日帝에 의한 亡國의 悲運이 없었던들 이토록 시베리아 韓人들이 「레닌」集團의 소비에트防衛戰線에 가담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레닌」集團은 바로 이러한 韓人社會의 反日獨立의 民族的 精力을 소비에트 防衛戰線에 조직적으로 動員했던 것이다.

그러나 시베리아를 포함한 全러시아에 대한 「레닌」集團의 장악과 더불어 러시아 韓人의 有用性은 이제부터는 소비에트 防衛戰線의 力量으로서가 아니라 소비에트 建設의 人的資源으로 그 價値가 轉換되고 말았다. 이 문제는 러시아 韓인에 대한 소비에트化 단계를 등장시켰다. 역사적으로는 第二次的 러시아化를 의미하고 현실적으로는 러시아 韓人의 레닌主義의 征服단계에 들어가는 것을 뜻한다. 그리하여 이제부터는 볼셰비즘 앞에서

民族主義의 不純性이 지탄되고 민족주의의 清算이 자기발전의 투쟁과업으로提起되었다. 이렇게 된 마당에서는 적어도 러시아內의 韓人을 대상으로 하는 高麗共產黨의 존재는 필요없게 되었다. 러시아 韓人의 소비에트化를 위한 보조기관을 볼셰비키黨內에 잠정적으로 설치하면 그분이다. 볼셰비키黨의 沿海縣 執行委에 「高麗部」가 附設되었던 事例가 바로 그러한 것이다. 물론 이같은 기관은 종래에도 各地에 부설되어 있었다. 그리하여 多少 民族的 性向의 運營이 허용되었다면 이제부터는 볼셰비키黨의 조직체계에 흡수되어 多少의 自律性마저 박탈되었다는데 변화적 차이가 있다.

이와같이 러시아 韓人에 대한 소비에트化過程의 進行에 따라 民族黨의 폐지는 불가피해진다. 高麗共產黨은 본래 순수 공산주의자들의 결사인 것이 아니라 排他的 民族主義, 個人英雄主義, 부르조아 民族主義者들 까지 혼탁되어 있는 似而非階級黨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民族主義배격의 볼셰비키黨 정책에 의하여 역사의 무대에서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하여 韓人의 소비에트化에 충실하고 소비에트·러시아를 조국으로 간직할 수 있는 정신의 소유자, 사상의 실천자만이 진정한 공산당원으로 포용을 받는 시대가 온 것이다. 高麗共產黨의 해산은 바로 이같은 문제와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다.

러시아 韓人의 소비에트化 단계가 高麗共產黨을 해산시킨 필연적인 역사과정이었다면 소비에트 러시아에 대한 日本의 挑發口實을 봉쇄하기 위해 「레닌」集團과 밀접한 관계를 가져온 韓人의 有力反日조직인 高麗共產黨을 해체시키지 않을 수 없었던 것도 그것의 또 하나의 객관적 압력이었다. 내외정책을 통하여 소비에트·러시아의 安全과 全面的인 소비에트化 건설을 진행해야 할 지금의 전략단계에 있어서는 하찮은 高麗共產黨件으로 일본의 도발구실을 남겨 둘 수는 없는 일이었다.

Ⅲ. 코민테른 極東人民大會의 韓國革命課題와 레닌集團의 韓國政策

코민테른 中央執行委員會는 1922年 1月 21日부터 2月 2日까지 「모스크바」와 「페테르그라드」에서 極東人民代表大會를 개최하였다. 時期的으로는 「워싱턴會議」에 대응하려는 것이었다. 워싱턴會議는 빠리 講和會議에서 未洽하게 다루어진 제 1차 大戰의 戰後處理문제를 再調整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同會議는 비록 극동문제를 다루기는 했으나 약소민족의 독립은 아랑곳도 하지 않았다. 韓國의 독립운동자들은 이 회의에 至大한 기대를 걸고 독립청원운동을 벌였으나 무시당하고 말았다. 그밖의 약소민족도 워싱턴회의에 대한 실망은 컸을 것이다. 敏感한 코민테른當局이 이 문제를 등한히 할리가 없다. 워싱턴會議의 진행을 주의깊게 살펴온 코민테른當局은 同會議에서 성취된 4개국 협정을 「吸血鬼의 同盟」으로 낙인하였다. 동시에 極東피압박 민족의 救世主는 오직 공산주의뿐이라는 기치를 높이 내걸었다. 이것은 西方列強에 대한 東方民族의 敵意 특히 美國에 대한 그것을 선동하려는 排西主義였다.

코민테른當局은 同大會를 기회로하여 韓國革命運動界의 散亂과 「無原則의 派爭」을 막아보려는 적극성을 감추지 않았다. 그리하여 上海, 國內, 滿洲, 시베리아의 韓人革命 단체에 초청장을 보냈는데, 民族・共產의 兩陣營指導者들을 포함시켰다.

韓國대표단은 23개 단체에서 선출한 52名으로 구성되었는데 이는 同大會의 各國대표 총수 144명의 3分之 1線을 훨씬 넘는다.³⁾ 韓國대표단에서 大會議長團으로 선출된 사람은 呂運亨이다.⁴⁾

同大會를 主宰한 「지노비에프」(코민테른 中央執行委員長)는 基調연설을

3) 著者未詳 「在魯高麗革命軍隊沿革」, 出版地 및 年代未詳. 아마도 그 文章 형식으로 보아 1920年代初, 시베리아의 韓人革命 단체에서 발행한 것으로 보임.

4) 「呂運亨調查」 pp.33~34.

통하여 民族主義의 진보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提示하고 코민테른은 前者에 限하여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여기서 민족주의의 진보적 측면이란 反帝民族해방 투쟁의 사명을 말하며 부정적 측면이란 오직 自民族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排他的 利己主義를 말한다. 「지노비에프」는 排他的 民族利己主義가 공산주의의 敵임을 경고하면서 소비에트·러시아와의 동맹으로 自國의 프롤레타리아 革命을 수행하겠다는 민족주의만이 코민테른의 지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의미의 선언을 하였다.⁵⁾

아롱든 코민테른 當局은 이 大會를 레닌主義의 講習과 훈련장으로 삼았으며 각국 대표단이 택해야 할 정치노선까지 提示하였다. 한국문제에 관해서는 광범한 민족연합전선의 결성만이 현단계의 정당한 노선임을 提示하였다. 여기서 민족연합 전선이란 民族·共產의 兩陣營이 反帝투쟁을 위한 하나의 통일전선으로 연합하는 것을 뜻한다.

大會의 運營要領에 따라 각국 대표단은 코민테른 政策에 추종하는 自國의 혁명문제를 토의하고 앞으로의 방침과 과제를 大會의 決定書草案(決議案)으로 작성하여 自國의 議長團員으로 하여금 全體會議에 보고했는데 韓國대표단의 決議案은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⁶⁾

- ① 韓國에서는 아직도 공업발전이 미약하여 산업노동자가 제급적으로 성장하지 못하였으며 따라서 제급의식이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급운동은 時期常早이다.
- ② 韓國은 농업국가이며 住民의 압도적 多數가 低水準의 농민이므로 이들에게 영합될 수 있는 민족독립운동에 注力해야 한다. 제급운동자들은 현단계에 있어서는 마땅히 일반민중이 공명하는 독립운동을 지도지원해야 한다.
- ③ 上海 임시정부는 명칭만 誇大하고 實力이 이에 同伴하지 못하여 지금까지의 경과에 있어서는 遺憾이 許多하므로 개혁할 필요가 있다.

위의 決議案을 細心하게 살펴보면 唯物史觀에서 말하는 역사발전의 단

5) 金昌順 著, 「韓國共產主義運動史」(第一卷) pp.390~392.

6) 「呂運亨調書」 pp.34~35.

계규정과 그에 적응하는 혁명노선 및 課題의 설정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에 있어서의 공산당원의 임무가 무엇인가를提起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시기의 한국공산주의자의 임무는 反帝민족해방투쟁 곧 反日 민족독립운동을 전개하되 그것은 광범한 민중지지를 얻는 것이어야 한다고 하였다. 민중은 농민이며 농민은 독립운동에 공명하는 자이기 때문에 계급투쟁을 앞세울 것이 아니라 농민의 이익에 결부시킨 反日투쟁을 전개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산업노동자가 아직도 主力的인 사회계급으로 성장하지 못한 조건하에서의 현단계적 임무임을 前提로 하였다. 더우기 주목할만한 사실은 上海臨政에 관한 言及이다. 이 무렵의 上海臨政은 民族·共產의 聯合戰線이 아니다. 李東輝는 물러간지 오래이고 呂運亨도 직접적으로는 관계하지 않고 있다. 上海臨政을 내용적으로 지배할만한 공산당원은 지금 그 속에 없다. 따라서 이 決議案에 上海臨政에 관한 言及이 있는 것은 코민테른의 意志 곧 레닌集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당연하다.

上海의 大韓臨政에 대한 레닌集團의 근본적 입장은 韓人의 민족적 反日투쟁이 國際프롤레타리아의 이익과 일치한다는데 있다. 더 구체적으로는 소비에트·러시아에 대한 日帝의 위협을 알몸으로 막고 있는 것이 大韓臨政이 있다는데 있다.

韓人의 反日투쟁을 더욱 실속있게 조직하고 전개하기 위해서는 大韓臨政을 強化해야 하겠고, 그 방도는 통일된 고려공산당을 主력으로 民族·共產의 연합전선을 결성하여 이 戰線으로 하여금 대한임정을 끌고나가게 하자는 것이 레닌집단의 방침이다. 한국대표단의 결의안에 上海臨政의 개혁필요를 강조한 것은 多分히 코민테른의 意志 곧 레닌집단의 방침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것이다.

極東人民代表 대회가 끝난 뒤에 모스크바 資金이 上海에 반입되어 民族·共產의 연합전선 결성을 시도하는 世稱 上海國民代表大會 개최로 연결된 것은 레닌집단의 對韓정책을 理解하는데 도움을 준다. 反日투쟁은 민족통일전선에 의하여 진행되어야 하며 민족통일전선은 내용적으로 공산당에 의

하여 主導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민족주의의 진보적 사명은 反帝민족해방투쟁에 집중될 따름이며 이 反帝민족혁명이 승리하는 즉시로 민족주의의 사명은 끝나고 다음 단계는 사회주의 혁명으로 이어진다는 민족주의의 역사적 制限性에 대한 강조를 빼지 않았다.

極東人民代表 대회에서 한국혁명의 現段階論을 詳述한 볼셰비키黨 理論家들의 연설과 韓國臨政을 支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言及한 레닌의 同大會 축하연설 등은 바로 그 점을 말해주고 있다.⁷⁾

그래로부터 시간은 많이 흘렀지만 레닌집단의 對韓정책은 기본적으로는 아직도 살아있다. 공산당을 중심세력으로 하는 민족통일전선을 결성하고 이에 기초를 둔 民族・共產의 聯政을 등장시켜 反帝투쟁의 민족혁명을 달성하는 즉시로 공산당 정권으로 轉換하는 公式을 추구하는데는 그때나 지금이나 기본적으로 다를 것이 없다.

極東人民代表 대회를 통하여 明示된 東方의 민족주의에 대한 레닌主義의 이같은 방침은 프롤레타리아 革命을 달성하기 위한 긴 歷程에서 민족주의는 다만 反帝民族 解放투쟁의 단계적 사명을 가지고 있을 뿐 그 사명이 끝나는 즉시로 역사발전 단계는 계급혁명투쟁으로 移行하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는 민족주의는 벌써 존재하지도 존재할 수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 셈이다.

IV. ML 黨에 내려진 指令과 코민테른의 對韓政策

世稱 ML 黨事件으로 검거된 金俊淵이 西大門형무소 감방에서 長文의 「事實補充申立書」를 제출한 사실이 있다. 이에 의하면 朝鮮共產黨에 대한 코민테른의 決定書는 단한번 있었는데, 그것은 제 3 차로 조선공산당을 조직한 金綴洙가 1927 年 7 月頃 모스크바에서 歸國할 때 가지고 온 것이라고

7) 가) 前掲「韓國共產主義運動史」(第一卷) pp.391~392.

나) 「呂運亨調書」p.35.

했다.⁸⁾ 同 決定書는 黨組織 운영방침과 單一的 民族革命戰線 조직방침 등 重要사항을 포함하고 있는데, 朝鮮總督府文書에는 그 내용이 아래와 같이 나타나 있다.⁹⁾

- ① 朝鮮運動은 民族革命 單一戰線이 필요하다. 이 單一戰線에는 노동자, 지식인, 小 부르조아, 一部 부르조아까지 포함시켜야 한다.
- ② 그 民族革命戰線은 現存하는 民族的 表現단체를 가지고 만들어야 한다. 共產主義者는 同戰線에 망라된 단체들을 서로 親近케 하며 서로 接近케 하여 一定의 行動綱領下에서 투쟁토록 해야 한다. 그것을 가지고 單一國民黨의 단체를 產出시켜야 한다.
- ③ 朝鮮의 現狀에 있어서는 單一民族黨을 만든다고 하면 單一共產黨이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
- ④ 共產主義者들이 민족단체에 들어가서 활동할 때에는 公산주의자임을 알게 해서는 안된다. 민족단체내에 있는 노동자 농민을 토대로 하여 全團體를 左傾化해야 한다. 투쟁은 민족혁명의 계급적 표현하에서 행해져야 한다. 公산당이 민족단체의 지도적 지위를 점령하는 일이 없도록 사상이념적으로 지도함을 要한다. 그러나 일을 하기 위한 범위내에선 필요한 지위를 占하지 않으면 안된다. 民族革命單一戰線內에 分派가 있을 경우에는 分열되지 않도록 首領 또는 群衆들全體를 一定의 行動綱領下에 인도하지 않으면 안된다.
- ⑤ 朝鮮의 民族運動內에는 無原則의 派爭이 있다. 同派爭을 日本警察이 교묘히 이용하고 있다. 그 派爭이 朝鮮에서는 조직적 정치적으로 모두 문제이다.
- ⑥ 가장 격렬하고 無原則한 행동은 朝鮮公산당 內에도 있다. 그렇지만 1926年 코민테른의 決定書가 交付된 후에 있어서는 서울靑年會의 高麗共產同盟에서도 火曜會의 高麗共產靑年會에서도 통일기세가 점점 顯著해지고 있는데, 6月事件即 조선公산당의 검거사건이 있는 후 公산주의운동이 타격을 받은 것은 일층 통일을 촉진시키는 기회로 되었다. 그러므로 1926年 11月에 黨 및 共產靑年會의 合同을 본 것은 코민테른 決定書에 의한 一步前進이라고 볼 것이다. 코민테른은 高麗共產靑年會와 朝鮮共產黨의 現職幹部를 승인한다.
- ⑦ 그러나 아직도 派爭을 계속하고 있는 者들은 무질서한 운동을 계속하고 있다. 앞서 코민테른의 警告決定書가 있었음에도 不拘하고 새삼 코민테른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이에 견책하는 바이다.

8) 「金俊淵 外 訊問調書」(10) pp.1751~1752.

9) 「京城地方法院檢事局」第3次 朝鮮共產黨 高麗共產靑年會 事件 檢舉件」p.510.

⑧ 아직 共產黨에 入黨하지 않은 共產主義分子들은 唯一的 朝鮮共產黨 및 高麗共產青年會의 旗幟下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된다. 또 조선공산당에서도 모든 공산주의자들을 망라하는데 힘쓰지 않으면 안된다.

⑨ 그같은 통일과업을 실현하자면 朝鮮共產黨中央幹部 및 高麗共產青年會 中央幹部는 코민테른의 指導下에 모든 공산주의자들을 망라하여 새로 黨細胞를 굳게 만들고 행동강령과 정책방침을 가지고 大會를 소집, 그 방침을 구현해 나가야 한다.

⑩ 朝鮮에는 黨員군이 不足한 탓으로 朝鮮共產黨대표를 아직 모스크바에도 두지 않지만 코민테른 執行委員이 조선문제를 일층 有力하게 지도할 것을 明示한다.

⑪ 海外에 있는 團體 및 個人 등이 朝鮮內의 운동에 지도적 간섭을 행하기 때문에 黨派爭을 야기시킨다. 코민테른에서는 今後 그같은 지도적 간섭을 행하지 말것을 엄명한다. 中央幹部는 海外部를 철폐할 것을 命한다.

上記 朝鮮總督府의 文書는 文面이 명료하지 못한 곳이 많다. 예컨대 第③項을 들 수 있다. 金綴洙에 의하면 當時(1927年) 民族運動界와 社會運動界를 하나로 묶어서 合法的 單一民族協同戰線같은 것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 지도를 위해서는 地下에 공산당 조직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이 코민테른의 방침이었다고 한다.¹⁰⁾ 그리고 제⑥項 記錄가운데 『1926年 코민테른의 決定書가 交付된 후에 있어서는 서울青年會의 高麗共產同盟에서도 火曜會의 高麗共產青年會에서도 통일기세가 점점 顯著』云云은 1925年 4月 朝鮮共產黨結成(火曜派)에 소외된 서울青年會, 北風會, 朝鮮勞動黨에 대하여 코민테른은 各各「콤 그룹」(Com. Group)으로 승인하는 同時一決定書를 통하여 장차 조선공산당과 3개「콤 그룹」이 단합하여 통일적 조선공산당을 성취할 것을 촉구한 사실¹¹⁾을 想起시킨 것이다. 그 以下の

10) 金綴洙 인터뷰, 1967年 5月 15~16日. 井邑 內藏山莊호필.

11) 前揭京城地方法院檢事局「第三次 朝鮮共產黨高麗共產青年會事件檢舉ノ件」1928. pp. 505~506.

1. 코민테른 總幹部에서 定한「고미스」(委員, 代表의 뜻 一筆者)와 同東洋部에서 定한 委員會에서는 서울青年會·北風會·朝鮮勞動黨의 三그룹을 共產團體로 승인함.

2. 三그룹 共產團體는 朝鮮共產黨과 투쟁할 수 없는 同時에 朝鮮共產黨도 三그룹 共產團體와 투쟁할 수 없음.

부분은 金銀洙에 의하여 제 3 차로 재조직된 世稱 ML 黨을 통일적 조선공산당 성취를 촉구한 코민테른 決定書의 一步前進이라고 까지 두둔한 것이다. 사실 ML 黨은 중대 소외되었던 서울派 등을 규합한 點에 있어서 통일적 조선공산당 조직을 지향한 前進的 실천이었다고 평가될만 하다. 그와같은 긍정적 평가에 의하여 金銀洙가 제출한 제 3 차 조선공산당(ML 黨)의 간부는 승인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제⑦項은 朝鮮共產黨(火曜派)과 서울青年會, 北風會, 朝鮮勞動黨은 派爭할 수 없다는 코민테른의 指令¹²⁾이 있음에도 不拘하고 아직도 派爭을 지속하고 있는 사실을 힐난하고 있다.

아름은 金銀洙에게 手交된 코민테른의 11개 指令은 黨組織 운영방침에 있어서 金銀洙의 제 3 차 조선공산당을 各派糾合의 一步前進으로 평가하고 同黨幹部를 승인함과 동시에 派爭지속자들을 힐난하면서 上海에 설치된 「海外部」를 철폐시키라고 했다. 이 사실은 제 2 차 조선공산당이 검거된 후 黨再組織문제를 가지고 코민테른에 출두하여 一大논쟁을 벌였던 金銀洙對 金燦의 對決을 金銀洙의 승리로 定結지은 것을 뜻한다. 兩人은 제 2 차 조선공산당에서는 國內幹部和 海外幹部였는데, 金銀洙는 5人執行委員의 1人으로 조직담당이었고 金燦은 海外部員이었다. 제 3 차 조선공산당 조직에 대한 코민테른의 金銀洙지지는 國內黨育成을 위한 코민테른의 意志를 천명한 것으로 된다.

金銀洙에게 手交된 코민테른 指令가운데 本 論文의 主題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部分은 제 1項에서 제 5項까지의 單一的 民族協同戰線에 관한 문제이다. 여기서 單一的 民族協同戰線이란 單一的 國民黨 곧 民族單一

3. 코민테른은 朝鮮共產黨과 三그룹 共產團體가 合하여 통일적 黨으로 되기까지 共產黨 또는 共產團體에 대하여는 各各 따로 연락을 취하며 그 報告도 각각 따로 접수할 것이며 指令도 각각 따로 交付한다.

4. 코민테른은 三그룹 공산단체의 운동성적이 조선공산당의 운동성적보다 우세할 때에는 조선공산당대표와 三그룹 공산단체 대표를 소집하여 통일적 黨을 만들기 위해 「고미스」를 선출하여 이를 決定한다.

12) 同上.

黨을 말한다. 民族운동의 左右陣營을 하나로 묶어 單一的 民族黨을 결성 하자는 거론은 朝鮮共產黨에서는 姜達永을 책임비서로 하는 제 2차 黨에서 시작하여 主로 天道敎의 舊派세력과 접근을 시도했으나 進行도중에 검 거되고 말았다.

그러나 조선공산당(火曜派)의 合法的 사상단체인 「正友會」는 東京「一月會」幹部들의 가담으로 陣容을 정비하고 연속적인 조선공산당 검거로 사 회운동이 크게 침체된 것을 復活코저 1926年 11月 15日 方向轉換의 新方針을 천명하게 된다. 이것을 韓國社會運動史上 유명한 「正友會宣言」이라고 한다. 이 宣言의 主唱者 安光泉은 그후 제 3차 조선공산당의 책임비서가 된다.

正友會宣言은 첫째로 分派투쟁의 청산과 사상단체의 통일을 주장했고, 둘째로 대중의 無知와 自然成長性的 퇴치를 위한 조직 및 교육운동을提起했고, 셋째로 종래의 경제투쟁형태로부터 정치투쟁형태로 轉換할 것을 요구했다. 이 선언은 1,2차 조선공산당 검거후의 社會運動界에 사상적 이론적 자극제로 되었다.

1927年 2月 15日 民族운동의 左右陣營이 李商在와 洪命熹를 正副會長으로 「新韓會」를 창립한 것은 韓國의 民族運動史上 民族・조선의 單一的 民族協同戰線을 實現시킨 역사적 一大偉業이라 하겠는데, 이에 있어서의 正友會宣言의 作用은 경시할 것이 못된다.

코민테른은 韓國의 民族운동계를 左右一束의 民族協同戰線으로 單一化 하되 그것은 어디까지나 合法的 組織體임으로 그것을 지도하는 地下조직으로서의 조선공산당이 있어야 한다는 조직원칙을 견지하였다. 金鋹洙에게 手交된 指令 제 3項이 바로 그것이다.

코민테른은 韓國의 공산주의자들에 대하여 左右一束의 合法的 民族協同戰線에 正體를 밝힘이 없이 들어가서 同 戰線의 지도자들과 會員들을 左傾化해야 한다고 指令했다.

코민테른은 이미 中國에서 國共合作을 公然히 實現시켜 공산당원이 포

면상 국민당원이 되어 공산주의의 政策노선을 추구케 했다. 이른바 국민 혁명을 先行하여 사회주의 革命으로 轉換했다는 公式이다.

韓國에서는 單一的 民族協同戰線을 결성하고 地下공산당의 主導下에 민족혁명운동을 진행하자는 프로그램을 明示했다. 金綴洙에 手交한 指令 제 4·5項이 바로 그것이다.

코민테른의 單一的 民族協同戰術은 기본적으로는 지금도 살아있다. 북한공산집단의 對南정책과 전술을 체계적으로 다루는 사람들은 당시의 코민테른 指令에서 많은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V. 코민테른의 朝共黨批判과 方針提示

코민테른은 上海의 遠東부를 통해 朝鮮共產黨에 一決定書를 보내왔다.¹³⁾ 同 決定書는 朝鮮共產黨에 대한 비판과 방침을 提示한 것인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派爭을 일삼는 모든 그룹과 개별적 공산주의자들은 무조건 罪責해야 한다. 現在의 모든 外部그룹과 코민테른의 지도를 받아들이려는 모든 세력을 黨과 共靑조직에 끌어들여야 한다. 派爭을 平和裡에 청산하는 것은 新任中央委員會의 任務이다. 中央執行委員會는 派爭을 밖으로 내몰아서는 안된다. 派爭에 대한 최선의 방어책은 黨內共和主義를 취하는데 있다.

② 朝鮮共產黨은 편협하게도 지식계급과 학생의 결합체로 되어있다. 노동자 농민은 비교적 少數만 포함되어 있다. 이 상태는 공업노동자수가 極少하고 人口의 압도적 다수가 빈농상태이기 때문에 지식층의 대부분이 공산주의로 기울어진 데 있다. 공업노동자와 빈농이 공산주의에 기울어지기 전에 지식층이 먼저 공산주의에 가담하게 되었다. 이 때문에 조선공산당은 지식층과 학생의 공산당이 되고 말았다. 黨은 빈약한 사회적 결합을 개조하지 않으면 안된다. 노동자 및 농민의 요소를 더 많이 黨內에 끌어들여야 한다. 新中央執行委員會와 그밖의 黨指導機關에 노동자 출신을 더 많이 배치해야 한다.

13) 京城地方法院檢事局思想部「秘密結社朝鮮共產黨並高麗共產青年會事件檢舉件」p.19.

③ 黨은 모든 工場內部에 깊숙히 잠입해야 한다. 어떠한 공장·제조소를 막론하고 공산당원이 있는 곳에서는 공장세포를 조직해야 한다. 鑛業과 鐵道는 조선에서는 큰 사회적 의미를 가진다. 黨은 全力을 집중하여 鑛夫 및 철도종업원에 견고한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工場細胞를 가지고 있는 공산당은 자본주의 경찰도 어쩔 수가 없다.

④ 프롤레타리아트의 前衛를 조직하는 것만으로는 不充分하다. 광범한 노동대중을 조직해야 한다. 프롤레타리아트의 중요한 대중조직은 산업조합이다. 조선에서 산업 조합을 조직하는 것은 대단히 곤란하다. 그러나 각 공장에 단일적 산업 조합을 조직하는 것이 공산주의자의 임무이다. 공장조직과 산업동맹을 결합시켜야 한다. 산업조합내에서 공산주의자가 지도적 역할을 하게될 때 혁명은 전개되는 것이다. 各地方 산업조합에 공산당의 무락순을 가져야 한다.

⑤ 공산당은 다만 노동계급의 지도자로 만족해서는 안된다. 가장 廣大한 계급은 농민이다. 黨員은 빈농, 小作人, 半小作人을 조직하기 위해 공작하고 發起하지 않으면 안된다. 농민의 경제적 정치적 투쟁을 지도하기 위해서는 광대한 농민의 결속을 형성해야 한다. 공산당원은 현존하는 농민조직에 깊이 침투해야 한다. 모든 농민조직에 공산당의 무락순을 집어넣어야 한다.

⑥ 광범한 국민혁명의 大衆黨을 출현시키는 것은 조선공산당의 중심과제이다. 혁명적 대중당은 조선혁명의 道具가 되어야 한다. 혁명적 대중당은 한개의 지도 단체로 침체 전략해서도 안되고 中國 국민당의 운명을 재습해서도 안된다. 공산당은 어떠한 條件下에서도 어떠한 조직에 있어서도 조직적 이념적 獨自性을 반드시 恒存해야 한다. 국민혁명적 大衆黨에서 공산당원이 모든 地位를 占할 필요는 없다. 다만 이념적 조직적 영향력을 黨派없는 노동자 및 농민계급 속에 뿌리박으면 된다.

⑦ 우리는 新幹會를 프롤레타리아 要素로 형성해야 한다. 그리고 幹部로 하여금 레닌주의적 사상을 파악토록 해야 한다.

1928年 2月 27~28일에 개최된 朝鮮共產黨 제 3차 대회는 以上の 코민테른 決定書를 토의했다. 決定書가운데 派爭을 請算해야 한다는 部門에 대해서는 『1927年 上半期 이후는 派爭은 完全소멸되고 現在의 小黨派는 全的으로 非共產主義 團體이므로 평화적 수단에 의한 해결의 필요를 인정하지 않는다』¹⁴⁾는 修正條 보고를 코민테른에 제출하기로 可決했다.

14) 同上 p.10.

코민테른이 조선공산당을 지도함에 있어 이번처럼 具體性을 발휘하기는 처음이다. 조선공산당의 體質분석에 나타난 코민테른의 科學性은 공업노동자와 빈농이 공산주의에 기울어지기 전에 인테리 靑年學生이 먼저 공산주의에 기울어지게 되었가는 점을 지적하면서 그 缺陷을 是正하기 위해서는 鑛夫와 鐵道종업원을 조직토대로 삼은 것과 특히 工場細胞를 증대시켜야 한다고 일일이 指示하고 있다.

이 點은 조선공산당의 年輪이 幼弱하여 세련된 조직자가 稀少하다는 點과 日帝警察의 神技앞에서 공산당을 維持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점을 감추지 않고 있다.

아동은 코민테른의 이 決安書는 조선공산당에 「친절한 指示」를 내리는 가운데 勞農대중을 광범하게 黨조직에 망라하는 것이 急先務임을 강조하고 勞農계급의 대중조직인 산업조합과 농민조합에 浮락畚을 집어넣으라고 구체적 지령을 내리고 있다.

특히 제 6項과 제 7項은 광범한 국민혁명의 大衆黨을 출현시키는 것이 조선공산당의 중심과제임을 提示하면서 이미 1927年 2월에 單一的民族 協同戰線으로 결성된 新幹會를 左傾化시키라고 指示하고 있는 것은 코민테른의 對韓政策을 감추지 않고 있는 것이다.

Ⅵ. 코민테른大會의 韓國共產主義運動에 關한 決議와 對韓政策

1928年 7~8월에 모스크바에서 제 6 차 코민테른 大會가 개최되었다. 同大會는 韓國의 共產主義 運動에 關해서도 決議를 행하였다. 그것은 同大會가 채택한 「殖民地 半殖民地諸國에 있어서의 革命運動에 대하여」라는 테제속에 韓國의 共產主義運動에 關한 決議文項을 포함시킨 것을 말한다.

同 테제는 (1) 序文에서 帝國主義와 殖民地 및 半殖民地 關係를 世界全域에 걸쳐 概觀한 뒤 (2) 殖民地經濟와 帝國主義的 殖民地정책의 특징을

7個項에 걸쳐 詳察하고 (3) 中國 印度 및 類似植民地諸國에 있어서의 共產主義戰略戰術을 12個項에 걸쳐 詳論하였다. 그리고 共產主義者의 當面任務 14個項을 提示하는 등 總 41個項으로 作成된 방대한 文件이다. 同테제 제 36項은 韓國의 共產主義운동에 대하여 論及한 것인데 그 중 가장 注目을 要하는 點은 아래와 같다.

『大規模의 宗教的 民族同盟(天道敎)에 속하는 근로대중속에 들어가서 熱誠의으로 혁명적 啓蒙활동을 전개하여 그들을 민족개량주의적 지도자로부터 분리시켜야 한다. 現存하는 모든 혁명적 대중조직에 대하여 公산주의의 영향력을 굳히지 않으면 안된다.』¹⁵⁾

天道敎를 대규모의 종교적 민족동맹으로 규정하고 이 조직에 속해 있는 근로대중을 민족개량주의자들로부터 떼어내서 혁명적 대중으로 묶어 세울 것을 요구하고 있다.

天道敎는 「靑年黨」과 「農民社」의 조직을 가지고 있었다. 이 兩者는 性格上 민족주의적 정치결사나 다름없다. 그리고 天道敎의 지도층은 舊派와 新派로 분열되었는데, 舊派의 領袖는 李鐘麟·權東鎮등이고 新派의 領袖는 崔麟이 그 대표적 인물이었다. 그리하여 舊派는 日帝와의 非妥協 民族革命노선은 추구했다면 新派는 日帝와의 가능한 타협을 모색하면서 독립을 성취한다는 이론바 改良主義的 노선을 추구했다.

제 2차 朝鮮共產黨의 책임비서 姜達永은 民族運動단체와의 관계를 진술하는 가운데 天道敎의 내막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그 자리에서는 李鐘麟의 發言으로 기억하지만 우리 민족주의자는 同一步調로서 대동단결의 필요가 있는 터인데, 崔麟派 같은 것은 自治운동에 찬성하고 있는 모양이니 참으로 痛恨事가 아닐수 없다. 지금 天道敎靑年黨內에서도 崔麟과 같은 才識兼備의 者는 없어 참으로 애껴야할 인물임에도 그 행동이 이래서는 참으로 한심한 일이다. 그가 安昌浩의 股肱인 李光洙, 東亞日報側 및 興土團長 安

15) 金正明編 「韓國獨立運動資料」 V. p.733.

昌浩동과 提携 연락을 취하여 修養團인가 研政會인가를 조직함도 그 출발은 여기에 있는 것이다.

天道敎內에 農民社를 조직한 것도 그 뜻은 다른 것이 아니다. 농민사의 조직내 용을 보면 多數의 會員을 모집하여 地方에 支部를 두고 會를 소집하는 것을 보더라도 단순한 잡지경영의 기관이 아니고 반드시 將來 自治制가 실시되었을 때 多數의 議員을 양성하여 두었다가 一個의 政黨으로서 議政壇上의 세력을 장악하려는 기초준비에 지나지 않는다……」¹⁶⁾

코민테른의 文件에 天道敎의 「民族改良主義者」云云은 多分히 崔麟 등의 新派指導者를 指目한 것으로 看做된다. 아 물론 天道敎가 가지고 있는 조직의 근로대중을 혁명적 계몽활동을 통해 민족개량주의자들의 영향으로부터 빼어내 공산주의자들의 영향하에 두어야 한다고 한 것은 天道敎조직을 내용적으로 赤化한다는 것이다. 非但 天道敎의 조직체뿐이 아니라 그 밖의 모든 대중조직도 공산주의의 영향하에 두어야 한다고 했다.

제 6차 코민테른 文件의 이와같은 方針提示는 그 以前의 코민테른의 指導방침에 대하여 左轉한 感이 있다. 종래의 방침은 대체로 (1) 노동자 농민 및 그 밖의 근로자를 결합하여 민족 독립운동을 前面에 내세운다. (2) 中國의 國民黨과 같은 민족적 혁명당을 건설한다. (3) 민족운동단체의 분열을 방지하고 모든 단체와 그 지도자들까지 左翼化하여 민족혁명투쟁으로 물고간다는 것으로 집약된다.

그러나 제 6차 대회의 文件은 민족운동단체의 근로대중층에 들어가서 혁명적 계몽활동을 통해 민족개량주의적 지도자를 고립시키고 그들로부터 근로대중을 분리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 點은 종래의 방침에 比하여 큰 差異의 趨勢적 의미를 보여주는 것이다. 종래의 방침에 있어서는 민족단체의 지도자를 존중시켰다면 지금은 민족개량주의자로 烙印하여 그 단체의 조직성원들로부터 고립시킬 것을 指示하고 있다. 이것은 종래의 趨勢문제가 單一的 民族協同戰線의 結成에 留

16) 京城地方法院檢事局「第二次 朝鮮共產黨事件檢舉關スル報告綴」pp.206~215 (姜達永陳述).

意하고 우익지도자들과의 통일전선 형성을 원했다면 그것은 곧 위로부터의 통일전선 전술이었는데, 지금은 우익지도자들을 대중의 面前에서 非行과 無能을 무자비하게 폭로하여 고립시키는 밑으로부터의 통일전선전술로 개편한 것이다.

제 6 차 코민테른大會의 한국 공산주의운동에 관한 決議文件이 어떠한 報告事項에 근거하여 作成되었는지는 몰라도 大意로 보아서는 1920 年 제 2 차 코민테른大會에서의 레닌의 『植民地 및 半植民地의 民族問題에 關한 테제』가 채택된 이후 세계정세가 많이 변천했고 특히 帝國主義對 植民地 문제가 일종 첨예화되어가고 있다는 일반적 관찰에 기초하여 한국적 사정을 고려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나 민족운동 단체에 대하여 반드시 下層통일전선을 적용해야만 했던가의 得失문제에 있어서는 결과적으로 得보다는 失이 많았다고 본다.

Ⅶ. 코민테른의 朝共黨再建指令과 民族協同戰線의 運命

1928 年 12 月 코민테른 執行委政治書記局은 제 6 차 코민테른大會의 決定書「植民地・半植民地諸國에 있어서의 革命運動에 대하여」에 기초하여 朝鮮共產黨의 재조직에 관한 決定書를 발표했다. 同 決定書는 長文에 걸쳐 조선공산당의 재조직이유와 방침을 밝혔다.

재조직 이유로서는 조선공산당원이 거의 지식인과 학생들이기 때문에 계급적 혁명당이라기 보다는 小브르조아 政黨인듯한 감마저 없지 않다고 하면서 바로 그렇기 때문에 조선에 있어서의 공산주의의 영구적 위기를 낳게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므로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은 조직상의 오류를 청산하고 코민테른 執行委員會의 決議(一名 「12 月 테제」)가 提示한 방침에 따라 조선공산당을 재조직하라고 했다.

재조직 방침으로는 인텔리置重의 종래의 조직방법을 버리고 공장과 기

업소 속으로 파고들어가 공장노동자를 우선적으로 당원으로 확보하는 공작을 전개할 것이며 이와 병행하여 빈농을 당원으로 획득하라고 했다.

以上은 별로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고 既往의 指令에서도 言及되고 지적되어 온 것이기 때문에 재해석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그러나 民族主義와의 共同행동에 관한 部分은 심각한 표현을 통하여 그 限界를 명백히 하고 있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예컨대 민족해방단체(新幹會, 天道教, 衡平社를 탈함)에 들어가서 民族主義的 기회주의자의 因循踏踏를 목로하고 많은 투사의 획득에 노력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¹⁷⁾

同 再建指令은 民族主義와의 關係를 다음과 같은 표현으로 경고했다. 即, 『조선의 공산주의자는 自身の 모든 工作과 모든 任務에 있어 小부르조아 黨派와 분명히 분리하고 혁명적 노동운동의 完全한 獨自性을 엄격히 간직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혁명투쟁의 便宜上 一時的 提携를 필요로 한다면 그것은 허용된다. (제 6 차 코민테른 大會의 植民地地제). 이 경우는 물론 혁명적이지만 그러나 그 共同行動이 공산주의 운동과 부르조아 革命運動의 合流여서는 안된다. (同上) 부르조아지의 반대가 있을 경우 공산주의자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 但 그 반대가 있다고 하더라도 대중의 운동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이용할 수 있는 경우 또는 부르조아지와 의 공동행동이 대중속에서 선동을 행하고 대중을 조직할 수 있는 공산당의 자유를 制限하지 않는 경우에 限한다. (同上)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공산주의자는 自身の 정치적 독자성을 完全히 간직하고 그 眞面目을 보여줄 뿐 아니라 사실을 가지고 부르조아지 影響下의 노동대중에게 부르조아지의 그와같은 반대는 全的으로 있을수 없다는 점과 부르조아 民主主義者의 幻想이 위험하다는 점을 밝혀 놓아야 하는 것이다』¹⁸⁾ 傍點一筆者.

공산주의자와 民族主義者의 공동행동은 결코 공산주의운동과 부르조아 革命운동의 合流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規定은 민족주의에 대한 레닌主

17) 朝鮮總督府警務局「共產主義運動に關する文獻集」1936, pp.537~538.

18) 同上.

義의 基本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공산주의자는 어떤 時期 어떤 條件下에서도 완전한 獨自性을 가지고 행동하되 便宜上 민족혁명 운동자들과 便宜上 一時的으로 제휴할 수는 있다고 했으니, 진정한 제휴로서의 공동행동이 아니라 다만 전술상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一時的인 제휴임을 감추지 않고 있다.

코민테른의 조선공산당 再建指令에 들어 있는 민족운동의 左右協同관계에 대한 이와같은 규명은 제 6 차 코민테른大會의 植民地테제에 근거한 韓國民族부르조아지의 본질에 대한 規定에서 출발하는 것이겠지만 과연 당시의 한국사회의 현실을 올바르게 반영했는가의 與否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왜냐하면 韓國의 靑少한 공산주의자들은 코민테른의 朝共黨再建指令을 圖式的으로 받아들인 나머지 민족주의 진영에 左翼小兒病的 도발을 서슴치 않았고 끝내는 新幹會解體로까지 事態를 惡化시켰기 때문이다.

어쨌든 코민테른 執行委員會의 12月테제는 조선공산당의 재조직을 요구하는 拘束力을 가졌다. 이에 의하여 조선공산당 중앙은 1929년 6월에, 滿洲總局은 1930년 3월에, 日本總局은 1931년 10월에 各各 解體되었다.¹⁹⁾

코민테른 「12月 테제」에 의하여 해체된 조선공산당은 1945년 8·15 해방에 이르기까지 재조직되지 못했다. 수많은 黨再建투쟁이 벌어졌고 수많은 공산주의자들이 「12月 테제」以前에 적지 않게 검거투옥 되었지만 조선공산당은 재건되지 못했다. 이 문제에 관하여 「東京」의 一出版物은 코민테른의 조선공산당 해산이 결국 잘못이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卽,

『코민테른은 1928년 조선공산당내의 파벌대립이 심하고 조직이 노동계급에 뿌리박지 못했다는 이유로 조선공산당을 해산시켜 버렸다. 조선공산당에 관한 1928년 12월의 코민테른테제의 朝鮮情勢認識은 너무도 實情에 어둡고 公式的이며 全的으로 정치적 현실적 考慮가 不足한 極左 形式主義的 오류의 典型的인 것이었다.

19) 가) 朝鮮總督府敎學局 「思想研究」(第7輯) p.39, 1939년 3월.

나) 滿洲帝國軍政部顧問部編 「滿洲共產匪の研究」 第一輯, 1936년, 附錄 pp. 1~4.

다) 前掲 金正明編 「朝鮮獨立運動資料」 V(共產主義運動篇), pp.790~791.

왜냐하면 前資本主義의 半封建的 발전단계에 있으며, 저이기 日本帝國主義의 植民地의 中世紀의 탄압하에서 부르조아 政黨의 필요성조차도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朝鮮에서 혁명적 프롤레타리아 政黨을 조직하는 것이 얼마나 곤란한 일인가를 전혀 알지도 못하고 또 假使 해산시켰다손 치더라도 派閥이 짧은 時日內에 없어지고 진짜 勞動政黨이 생겨날 수 있는 상태에 있는것도 아니라는 점을 留意하지도 않고 一方으로 위로부터 해산을 요구하는 것은 전설적 同志의 비판과 원조라기 보다는 차라리 조선인민의 자연발생적 정치적 창조력을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1920年代의 조선공산당은 단지 一階級的 政黨이었던 것이 아니라 反帝民族獨立을 갈망하는 인민대중의 政黨이었다. 그것을 스탈린과 코민테른 委員들은 理解할 수 없었고 理解하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후 조선공산당은 코민테른의 지도하여서는 재건되지 못했다. 이 사실을 가지고 보더라도 코민테른의 조선공산당 해산결정은 잘못이었다고 할 것이다. 이것은 스탈린의 對朝鮮정책의 최초의 잘못이었다」²⁰⁾

VIII. 코민테른 外廓組織의 指令과 對韓政策

코민테른의 外廓조직인 프로핀테른(Profintern: 赤色勞組 인터내셔널)은 1930年 9月 「朝鮮의 革命的 勞組運動의 任務에 關한 決議」²¹⁾를 채택했다. 이 決議를 通常 「9月 테제」라고 한다.

同 테제는 韓國의 혁명적 勞組운동의 任務를 8個條 17개 項目에 걸쳐 詳論했는데, 民族主義와의 관계는 제 2~4 項에 들어 있다. 即, 제 2 項에서는 「日帝는 民族改良主義的 부르조아지에게 自治를 약속하는 代價로서 그들을 買收하고 그들의 도움을 얻어 새로운 革命的 防波堤를 구축하고 있다. 조선에서의 革命波濤의 増大, 中國 및 印度의 혁명운동, 소비에트·러시아의 社會主義建設成果 등의 앞에서 怯을 집어먹은 民族改良主義的 부르조아지와 그 단체(朝鮮日報, 東亞日報, 天道教의 一部)는 蔣介石과 中國의 反革命을 “模倣할만한 先例”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들은 日

20) 民族問題研究所編 「朝鮮戰爭史」(現代史의 再發掘), コリア評論社, 東京, 1967年, p.37.

21) 朝鮮總督府警務局 「共產主義運動に關する文獻集」, 1936年, pp.548~556.

帝와의 協力을 찾아서 反蘇使嗾을 하고 있다. 新幹會 역시 民族改良主義的 단체이다. 그들은 學生盟休, 노동자 시위운동에 處해서의 그들의 사보 타지를 가지고 그 점을 입증하고 있다」고 했고, 제 3項에서는 「노동운동에 대한 日帝의 야만적 테러, 노동운동의 内部에 자신의 地位를 強化하려고 애쓰는 民族改良主義的 부르조아지의 不斷한 노력, 이 모든 것들은 조선에 있어서의 프롤레타리아 階級투쟁이 민족해방투쟁의 극히 중요한 要因으로까지 발전했음을 증명하고 있다」고 했으며, 제 4項에서는 「小부르조아의 民族改良主義的 지도자들은 日帝경찰에 完全굴복한 分子」로 烙印했다.²²⁾

푸로핀테른의 決議가 韓國勞組운동의 任務를 提示하는 가운데 이토록 新幹會까지를 日帝와 야합한 民族改良主義 단체로 규정한 것은 한국의 미숙한 공산주의자들이 이 決議에 흥분하여 新幹會無用論을 提唱하고 끝내 解消시키는 發端으로 되었다.

1931年 9月 日帝의 滿洲侵攻이 開始되자 同年 10月 푸로핀테른의 一機關인 「汎太平洋勞動組合秘書部」에서는 『朝鮮에서의 汎太平洋勞動組合秘書部支持者에 대한 同秘書部の 飛檄』²³⁾이라는 決議를 채택했다. 通常 「太勞 10月書翰」이라고 한다.

同 決議는 世界經濟恐慌下 日帝의 滿洲侵攻에 直面하여 한국 노동계급의 當面任務를 5項에 걸쳐 提示했는데, 民族부르조아지에 대한 공격은 제1항에서 展開했다. 그 要旨는 多數工場의 폐쇄와 실업자의 未曾有의 격증으

22) 同上.

23) 가) 前掲 「共產主義運動に關する文獻集」 pp. 556~573.

나) 東亞日報 1933年 2月 17日.

푸로핀테른의 「9月檄」과 「太勞 10月書翰」은 韓國內에 재발리 전파되어 1932年 2月에는 벌써 「太平勞組의 公判」이 있게 되었다. 이 公判에서 「汎太平洋勞組」의 正體가 밝혀졌는데, 東亞日報는 다음과 같이 보도하고 있다. 『汎太平洋勞組秘書部는 1921年 7月 모스크바에서 창립된 푸로핀테른의 指導下에 있으면서 太平洋沿岸諸國의 左翼勞動組合의 結成과 指導統一을 목적하는 기관』.

로 한국노동자의 생활상태는 말할 수 없이 低下되었는데, 賃金は 30% 내지 50%線으로 引下되었고 노동시간은 2시간이나 연장을 강요 당하고 있다. 이것은 世界經濟恐慌下에서 韓國을 日帝掠奪의 基本的 地盤으로 轉落시키며 또한 滿洲占領에 따르는 非常法令의 施行으로 一切의 勞組운동을 말살시키려는 日本軍閥의 방침과 밀착되어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있어서 韓國의 民族부르조아지는 民族解放운동에 있어서의 自身の 體面을 保存하기 위하여 비록 「革命的」 「反帝的」 등의 語句로서 自身을 분장하고 있으나 실제로 있어서는 民族改良主義의 妥協의 勞動組合을 조직하여 계급주의적 투쟁에서 이탈하도록 힘쓰고 있다. 요컨대 그들은 혁명폭발의 결과에 의하여 약탈의 配分이 끊어질 것을 겁내어 自治운동의 표방 등으로 日帝에 접근하는 民族解放운동의 反動分子들이라고 규탄했다.

汎太平洋勞組의 韓國左翼에 보내는 檄文은 世界經濟恐慌의 深化에 따르는 緊急指針이라는 점에서 前年에 있는 푸로핀테론의 9月테제와 기본적으로 그 내용을 같이하는 것이다. 韓國의 民族부르조아지에 대한 규탄도 계급주의 公式를 더욱 노골화하여 左右協同의 反日民族運動戰線을 분열시키고 있다. 民族改良主義를 근본적인 親日投降主義로 몰아낸 것이 韓國社會의 民族的 反日精力을 勾합하는데 과연 이바지한 것인가 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하게 처리할 수 없는 문제일지 모른다.

아름은 韓國의 勞農운동은 이 서한으로 더욱 국제성을 띄게 되었고 종래의 합법적 노동운동 및 농민운동은 世界勞組 및 赤色農組로 左翼化하여 地下조직으로 잠적하게 되었다.

아름은 1930年 푸로핀테론의 9月테제, 1931年の 汎太平洋勞組秘書部 10月書翰은 韓國의 勞農운동을 國際線으로 연결시켜 左翼化한 직접적 계기가 되었다.